

發 刊 辭

금번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3호는 2004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을 맞이하신 白忠鉉 교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松賢 白忠鉉 교수께서는 36년 간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봉직하시면서 국제법학이라는 학문을 ‘책에만 머무는 학문’이 아닌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 정진해 오셨습니다. 松賢先生께서는 평소 학자가 하는 일이란 실천이라는 신념에 충실하게 국제법학의 학술적인 연구에 정진하심은 물론, 학계를 넘어선 다양한 실천활동을 국내외적으로 펼치셨고, 그 중에는 서울대학교에서의 각종 보직활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외적인 활동 중에서 UN 인권위원회 아프가니스탄 인권 특별보호관 자격으로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재를 보호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법학계를 대표해 오신 선생님의 학문하시는 자세는 법학의 좁은 차원을 넘어서 역사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셨고,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 그저 울분을 터뜨리기보다는 법학자로서 착실한 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하여 법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반환받았든지,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반환 논의에서 주요한 법학적 주장을 제공해 준 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법학과 역사학의 접목을 통하여 현실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제시하심으로써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松賢 선생님께서는 평소의 仁厚하신 風貌대로 무엇보다도 후학에 대한 배려와 열성이 남다르셨습니다. 법과대학에서의 誠心을 다한 교육과 지도는 물론이고, 후배교수들에 대한 마음쓰심도 모범적이셨습니다. 학맥과 학풍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으로서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서울국제법연구원은 다른 법학 전공자들로서는 羨望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서울대학교, 그 중에서도 법과대학,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

학계를 위하여 실로 폭넓고 깊이 있는 업적을 남겨주신 선생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그 아쉬움과 흠모의 마음을 ‘서울대학교 法學’에 담았습니다. 선생님의 학덕을 기리고자 바쁘신 중에도 玉稿를 내어 주신 同學 諸賢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더욱 건승하셔서 왕성한 활동으로 후학들을 계속 지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댁내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2004년 9월 7일
法學研究所長 崔秉祚